

광주FC “안방서 2위 잡고 4연승 간다”



11일 전북과 K리그1 13라운드 격돌
완벽한 전력으로 리그 순위 싸움 ‘시동’

광주FC가 ‘홈세’를 이어 전북현대를 상대로 홈 4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11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3라운드 전북과의 홈 경기를 펼친다.

광주는 안방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4월 이후 홈에서 진행된 제주SK FC, 대구FC,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 연달아 승리를 신고했다. 광주는 4월 6일 제주와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나온 헤이스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4월 9일에는 대구FC를 2-1로 꺾었다. 루키 강희수가 프로 데뷔골을 터트렸고, 오후성도 득점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 5일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는 골키퍼 김경민의 호수비 퍼레이드 속 오후성의 페널티킥을 앞세워 1-0승리를 거두고, 홈 3연승을 장식했다.

광주는 올 시즌 12경기에서 5승 4무 3패(승점 19)를 기록, 5위에 자리하고 있다. 5승 가운데 3승이 4월 이후 안방에서 치른 3연전에서 만들어졌다. 세 경기 모두 1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뒷심 싸움’에서 상대를 압도했다.

광주는 시즌 초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일정을 병행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원정을 다녀온 만큼 컨디션 관리라는 숙제를 안았다.

앞선 김천상무전을 통해 승리로 분위기를 살린 광주는 완벽한 전력으로 리그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었다.

강행군 속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다양한 옵션도

마련됐다. 시즌 초부터 선수들의 부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정효 감독은 최적의 조합을 찾아 시즌을 풀어나가고 있다.

오후성이 홈 4연승 킥을 쥐고 있다.

오후성은 앞선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을 기록하면서 결승골 주인공이 됐다. 본인이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 상황을 놓치지 않고 오른발로 시즌 3호골을 성공했다.

오후성은 알 힐랄과의 ACLE 8강전에서도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이면서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었다.

여기에 전북을 상대로 좋은 기억도 있다. 앞선 원정 승부에서도 오후성은 전북 골대를 뚫었다.

오후성은 2월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17분, 변준수의 롱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을 날리면서 올 시즌 마수결이 골을 기록했다. 아쉽게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지만 오후성의 2025시즌 활약을 예고한 경기가 됐다.

현재 전북은 6승 4무 2패(승점 22)를 기록하면서 2위에 위치했다. 전북전 승리는 광주에 상위권으로 치고 올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광주가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홈경기에는 축구 크리에이터 감스트가 광주와 함께한다.

감스트는 특별 게스트로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사인회, 시축, 하프타임 이벤트 등을 통해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해결사’로 떠오른 오후성을 앞세워 전북현대를 상대로 홈 4연승에 도전한다. 오후성(왼쪽)이 지난 5일 김천상무전에서 페널티킥골을 기록한 뒤 헤이스와 기뻐하고 있는 모습. <광주FC 제공>

이강 in ‘꿈의 무대’



PSG가 8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아스널(잉글랜드)과의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2차전 홈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둔 뒤 팬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PGS는 1·2차전 합계 3-1을 만들면서 결승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PSG,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행…박지성·손흥민 이어 ‘한국 3번째’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이 ‘꿈의 무대’로 불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면서 이강인도 박지성(은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로 대회 결승전을 맞이하게 됐다.

PSG는 8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아스널(잉글랜드)과의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2차전 홈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이로써 원정 1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던 PSG는 1·2차전 합산 점수에서 아스널을 3-1로 제치고 2019-2020시즌 이후 5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로 결승에 올라 대회 첫 우승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PSG는 인터 밀란(이탈리아)과 오는 6월 1일 오전 4시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마지막 한판 대결을 벌인다.

한국 선수 중 소속팀이 유럽 프로축구 최강 클럽을 가리는 UCL에서 결승에 진출한 사례는 박지

성, 손흥민에 이어 이강인이 세 번째다.

박지성이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소속으로 세 번의 UCL 결승을 맞이했고, 그 가운데 두 차례 출전했다.

박지성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07-2008 시즌 대회 결승에서 새 역사를 쓸 기회를 맞았으나 출전선수 명단에서 빠져 아쉬움을 삼켰다.

당시 맨유가 같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팀 첼시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1-1로 맞선 뒤 승부 차기에서 6-5로 이겨 정상에 오른 순간을 박지성은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8-2009시즌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스페인)와의 결승전에 선발로 나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선수로서 첫 UCL 결승 출전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박지성은 66분을 뛰고 교체됐고, 맨유는 0-2로 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박지성은 바르셀로나와 영국 런던에서 마주한 2010-2011시즌 결승에서는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뛰었다. 그러나 맨유가 1-3으로 저 또다시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8년 뒤 손흥민이 배턴을 넘겨받았다.

손흥민은 2018-2019시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리버풀(잉글랜드)과의 결승전에서 풀타임을 뛰었으나 토트넘이 0-2로 저 역시 우승 트로피 ‘빅 이어’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다.

이제 이강인이 계보를 이을 차례가 왔다.

다만 이강인의 최근 처지를 보면 출전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이강인은 이날 아스널과 4강 2차전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 4일 스트라스부르와 리그1 3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왼쪽 정강이 부위 타박상으로 전반만 뛰고 교체된 이강인은 이날 교체 선수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출전 지시는 끝내 받지 못했다.

올 시즌 리그1 29경기에 출전한 이강인은 UCL에서도 11경기를 뛰었으나 8강 1차전부터 4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다. 정규리그에서도 후반 교체 투입 경기가 늘어나는 등 출전 기회가 크게 줄었다.

이강인이 과연 UCL 결승 무대를 밟고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그라운드에서’ 우승 트로피에 입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광주FC 김경민·변준수 ‘베스트 11’ 선정

김천상무전 ‘클린시트’를 이룬 광주FC의 김경민과 변준수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8일 ‘하나은행 K리그1 2025’ 12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골키퍼 김경민과 수비수 변준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경민은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홈경기에서 상대의 유효슈팅 5개를 막으면서 1-0 승리를 완성했다.

특히 후반전 김천상무가 70%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뜨거운 공세를 이어갔지만, 김경민이 선방쇼를 펼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변준수도 상대의 흐름을 끊어내면서 무실점 승리에 힘을 보탰다.

12라운드 MVP는 강원FC의 이지호의 차지가 됐다.

이지호는 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FC 원정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강원 3-0 대승을 이끌었다. 이날 이지호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날카로운 크로스로 조진혁의



김경민



변준수

골을 도우면서 2-0을 만들었다. 후반 32분에는 직접 골을 넣으면서 썩기골을 장식했다. 강원은 베스트팀이 됐다.

베스트 매치는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가 선정됐다.

전북이 후반 42분 나온 전진우의 골로 1-0을 만들었지만, 경기 종료 직전 대전 김인균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1-1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부상 손흥민, 7경기째 ‘결장’

유로파리그 4강 2차전도 못 뛰어

발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결국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4강 2차전도 뛰지 못하게 됐다.

토트넘은 8일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은 나아지고 있으나 보되/글림트(노르웨이)와 UEFA 유로파리그(UCL) 준결승 2차전을 치르려 노르웨이로 떠나는 선수단과 동행하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9일 오전 4시 노르웨이 노를란 보도의 아스프미라 스타디움에서 보되/글림트와 2024-2025 UEL 4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은 지난 2일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3-1로 이겨 결승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황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노르웨이 원정도 함께 하지 않는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을 바탕으로 “주장 손흥민이 발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6경기에 출장하지 못했으나 아직 복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보되/글림트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나아졌고, 주말 경기에는 출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팀 훈련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좋아지고 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1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서 발을 다친 손흥민은 이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경기, 유로파리그 2경기에 뛰지 못했다.

이번 노르웨이 원정 불참으로 결장은 7경기째 이어지게 됐다.

토트넘이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노르웨이 원정 선수단 영상과 사진에도 손흥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토트넘은 노르웨이 원정을 마치고 11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EPL 홈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